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위상: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지영래 · 박선희
(고려대)

1. 머리말

제라르 주네트는 텍스트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선상의 중간지대라는 의미로 『문턱들』¹⁾이라고 이름붙인 저서에서, 문학작품이라는 대상은 작품의 순수한 텍스트와 더불어 그 가장자리에 걸다리로 붙어 있는 몇 가지 요소들(저자명, 책제목, 서문, 삽화, 표지에 쓰인 글, 띠지에 쓰인 글 등)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텍스트를 둘러싸고 그것을 연장하면서 텍스트를 소개하고 그것이 책의 형태로 수용되고 소비되는 것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 요소들에게 그는 “결텍스트(le paratexte)²⁾”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2-A00103).

1) Gérard Genette (1987) *Seuils*, Paris: Édition du Seuil.

주네트가 특유의 치밀하고 독창적인 작업 속에서 정리한 여러 결텍스트적 요소들을 검토해 보면 그의 성찰은 대부분 붙어 원본에서의 결텍스트, 즉 출발어 텍스트에서의 결텍스트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지 그 원본이 한국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로 번역된 텍스트의 경우엔 그가 정의한 결텍스트의 개념이 매우 불충분함을 발견할 수 있다. 과연 주네트적 의미의 “결텍스트”의 위상이 원본(출발어 텍스트)과 번역본(도착어 텍스트)에서 과연 동일한 것인가? 원본에서의 결텍스트적 요소들은 번역본에서는 또 다른 의미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성찰의 출발점이다.

번역학 연구에서 아직 크게 조명 받고 있지 못한 결텍스트에 관한 논의를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특정작품, 여기서는 플로베르(Flaubert)의 『마담 보바리(Madame Bovary)』의 한국어 번역본들에 그 범위를 한정시켜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담 보바리』의 우리말 번역본의 결텍스트 문제들을 관찰함으로써 주네트가 정의한 결텍스트 개념의 한계와 그에 대한 보완을 시도해보고, 이 과정에서 영미권 번역본들의 결텍스트 문제까지 확대하여 비교 관찰해 봄으로써 결텍스트의 문제가 복합적인 문화 시스템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주네트가 『문턱들』에서 제시한 결텍스트의 개념은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본 후, 과연 주네트에 의해 정의된 이 “결텍스트”의 개념이 번역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것이다. 하나의 원본 텍스트에 대한 번역본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원본 텍스트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결텍스트”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우 번역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원본 텍스트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결텍스트 요소가 더 있는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네트식의 조어법을 흉내 내어 그의 “편집자 결텍스트(paratexte éditorial)”, “저자 결텍스트(paratexte auctorial)”와 같은 용어에 대응하는 “번역자 결텍스트(paratexte traductorial)”와 같은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이다.

둘째,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연구는 하나뿐인 원본 텍스트를 대상으로

2) παρά-, “곁에(auprès de), 옆에(à côté de)”

할 때와는 달리 같은 내용을 모태로 하는 복수의 도착어 텍스트들(여러 번역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비교연구로부터 매우 다양한 층위의 문화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한 특정한 소설 작품, 여기서는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가 한국어로 처음 번역된 시기로부터 오늘날까지 다수의 번역자들에 의해 출간된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출판횟수나 출판구범의 변화, 혹은 제목이나 역자의 서문에서 발견되는 변이 요소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 그 동안 한 작가의 원작 소설이 한국이라는 하나의 한정된 공간 속에서 어떤 변천을 겪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음은 물론, 동시에 한 특정 소설이라는 변하지 않는 상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들이 어떤 변화들을 겪어왔는지도 관찰해 보게 됨으로써 한 사회의 시대상황 혹은 번역상황의 변천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셋째, 결텍스트에 관한 연구는 단일한 도착 언어권 속에서만이 아니라 복수의 도착 언어권에서 함께 비교하며 고찰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마담 보바리』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의 결텍스트와 영어 번역본의 결텍스트를 비교해 보면 원본 작품에 대한 각 번역본의 위상, 다시 말해서 원본 작품이 산출된 출발어 문화권과 이를 번역한 도착어 문화권 사이의 다양한 역학관계를 도출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상이한 언어권의 복합적인 문화시스템들 속에서 결텍스트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문화권 사이의 전체적인 역학구도를 조망하는데 결텍스트의 위상이 훌륭한 지표가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2. 결텍스트와 번역자의 자리

주네트는 결텍스트의 여러 다양한 형태들을 그 공간적 특성(즉 각각의 결텍스트들이 놓이는 자리), 시간적 특성(본 텍스트와 비교하여 각 결텍스트의 출간 시기), 본성적 특성(그 존재형태가 글인지 그림인지 등의 여부), 화용적 특성(의사소통요소, 즉 그 발신자와 수신자)과 기능적 특성(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여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다섯 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적 측면인데, 그 이유는 바로 어떤 목적으로 쓰일 결텍스트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나머지 측면들, 즉 그것이 책의 첫머리에 놓일 것인지 끝에 놓일 것인지, 책의 출판과 동시에 작성될 것인지 초판 이후에 작성될 것인지, 혹은 이미지로 표현될 것인지, 작가가 직접 쓸 것인지 등의 사항이 선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능적 측면에서 결텍스트의 본질적인 면이 정의되는데, “결텍스트는 그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근본적으로 자율적이지 못하고, 보조적인 담론이며, 그 자신의 존재이유를 구성하는 다른 것, 즉 텍스트에 봉사하도록 되어있는 담론(Genette 1987: 17)”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결텍스트”란 실천적이고 담론적인 면에서 타율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들이지만, 독자에게 책의 존재를 호소하기 위해 정보를 주고 설득하는 동시에, 주장하고 증명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결속된 전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텍스트”를 주네트는 그 공간적 특성을 기준삼아 좀 더 세분화하여 “주변텍스트(*le péri-texte*)³⁾”와 “후텍스트(*l'épitéxte*)⁴⁾”로 다시 구분하는데, “주변텍스트”가 공간적으로 같은 책 속에서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편집과 관련된 요소들, 즉 저자명, 헌사, 제사, 서문 및 각주 등의 요소를 말한다면, “후텍스트”는 책을 둘러싸고 있는 있지만 책 자체로부터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요소들, 예를 들자면 저자와의 인터뷰나 그의 편지, 일기 등을 말하는 것이다.

『문턱들』에서 제시된 주네트의 결텍스트에 대한 분류는 명쾌하지만 동시에 결텍스트의 이질적인 특성들로 인해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문턱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네트 자신도 이들 요소들의 이질성 때문에 체계적인 분류를 포기한 듯한 인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목차의 첫 번째 소제목은 “편집부의 주변텍스트(*Le péri-texte éditorial*)⁵⁾”인데, 이는 독자로 하여금 “주변텍스트”에 대응하는 “후텍스트”와의 구분과, “편집부”에 대응하는 “저자” 혹은 “제삼자”와 관련된 구분 등을 기대하게 하지만 이어지는 목차들은 이러한 체계적인 구분법이 무시된 채 일련번호도 없이 ‘저자명’, ‘제목’, ‘보도자료(*Le prière*

3) *péri-*, “주변의(*autour de*)”

4) *épi-*, “위의(*sur*), 이후의(*après*)”

5) 편집진의 책임 하에 결정되거나 작성되는 결텍스트적 요소들로서, 책의 판형(*formats*), 시리즈명(*collections*), 활자체나 구성, 표지와 그와 관련된 요소들, 즉 머릿그림이나 판권, 반표지와 속표지의 구성 등의 요소를 주네트는 “편집부의 주변텍스트”라는 항목아래 묶고 있다.

d'insérer), '헌사(Les dédicaces)', '제사(Les épigraphes)', '서문에 해당하는 글(L'instance préfacielle)', '초판 서문의 기능', '그 밖의 서문들, 다른 기능들', '소제목', '주석', '공적인 후텍스트', '사적인 후텍스트'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끝의 두 항목을 "후텍스트"로 분류한다면 나머지 앞의 11개 항목은 모두 "주변텍스트"로 분류될 수 있는 요소들이고, 각 항목들은 그 정의에서부터 역사적인 고찰과 기능적인 고찰 등이 섬세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일목요연한 체계적 분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고자하는 부분은 주네트 책의 이러한 이질적인 구성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문제삼고자하는 부분은 주네트에 의해 원저자가 자국의 언어로 쓴 원본 작품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정의된 "결텍스트"의 개념들이 과연 그 작품을 다른 언어로 옮긴 번역본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효한가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주네트가 제시한 개념들 자체가 워낙 이질적인 다양한 요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그의 책의 구조조차도 일목요연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 검토대상을 한정시켜 단순화시키고 시각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주네트가 구분한 "텍스트"와 "결텍스트"의 경계가 번역본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주네트가 분류했던 "결텍스트"의 다섯 가지 측면(공간적·시간적·본성적·화용적·기능적) 중에서 "결텍스트"를 작성한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는 그 화용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결텍스트"의 다른 네 가지의 측면은 일반적인 모든 텍스트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인데 비해, 그 화용적 측면은 원본 작품과 번역본에서 동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네트의 분류에서는 번역본에 대한 고찰이 빠져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주네트의 구분을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 1]을 제시할 수 있는데, 저자가 자국의 언어로 집필한 원본 작품의 경우 주네트가 정의한 텍스트와 결텍스트(주변텍스트+후텍스트)의 구분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림 1]

플로베르가 쓴 『마담 보바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제1부 제1장이 시작하는 ‘Nous étions à l’Étude...’부터 마지막 문장 ‘Il vient de recevoir la croix d’honneur’까지의 본문이 “텍스트”가 될 것이고, 그 앞에 붙은 ‘A Louis Bouillet’와 같은 헌사나 세냐르 변호사에게 바치는 감사의 글 등은 모두 “주변 텍스트”가 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어 원본을 다른 언어로 옮긴 번역본의 경우엔 이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번역본에서 텍스트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어 번역본의 예를 든다면 과연 어디까지를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만일 김화영과 같은 번역자가 헌사나 감사의 글까지 번역본에 옮기고 있다면 이때 “텍스트”의 범위는 번역자가 원본에서 번역하기로 결정한 모든 선택된 부분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 그 경우 “텍스트”의 외연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원본의 “주변텍스트”나 “후텍스트”까지도 포함하면서 훨씬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또다시 원본에는 없고 번역본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결텍스트”들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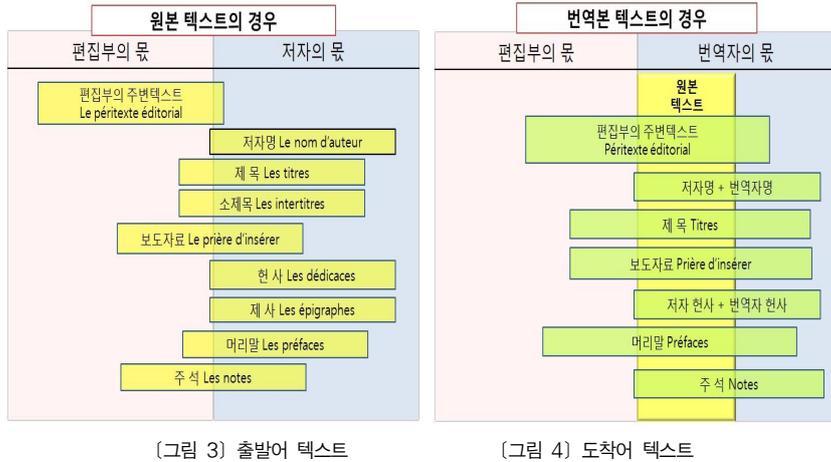
이러한 문제는 과연 각 “주변텍스트”의 발신자 혹은 그 책임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이 점도 원본과 번역본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번역자의 자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다. 논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네트가 구분한 “결텍스트”의 두 요소 중에서 “후텍스트”부분은 우리의 성찰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변텍스트”의 요소들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우선 원텍스트의 경우 그 각각의 작성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편집자의 몫과 저자의 몫으로 구분해서 그 요소들이 어디쯤 위치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자.

먼저 “편집부의 주변텍스트(le péri-texte éditorial)”의 경우, 가령 책의 판형이나 시리즈명의 결정, 표지 디자인 등은 대부분 편집자가 결정하지만 일정 부분 저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 페이지의 [그림 3]에서와 같이 해당 그래프를 저자의 몫에 약간 걸쳐놓은 위치에 배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자명’, ‘헌사’, ‘제사’의 부분은 대부분 저자의 책임 하에 작성되는 부분이고, ‘제목’이나 ‘소제목’의 경우는 저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편집자가 개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다소 편집부의 몫이 커졌다. 예를 들어 사르트르의 『구토(La Nausée)』의 경우 원래 저자는 “멜랑콜리아(Mélancolia)”라는 제목을 생각했었으나 출판사사장의 개입으로 제목이 바뀐 경우이다. ‘머리말’의 경우, 주네트의 구분은 누가 쓴 서문이냐에 따라서, 저자가 직접 쓴 경우엔 “저자 서문(le préface auctoriale)”, 저자가 아닌 제삼자가 쓴 경우 “타필 서문(le préface allographe)”으로 나누고 있어서, 책의 선전을 위해 저명한 인사에게 서문을 부탁한다든가 하는 경우엔 편집자의 개입이 많아 질 수 있다. ‘주석’의 경우는 책의 성격에 따라 그 책임소재가 많이 변동될 수 있어서 한 가운데 위치시켰다. 예를 들어 소설작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자에 의한 주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판본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르니에(Garnier) 출판사에서 나온 『마담 보바리』의 경우 그 편집자⁶⁾가 전적으로 주석을 단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주네트의 『문턱들』 같은 비평서적의 경우엔 저자 자신이 모든 각주를 달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다. 우선

6) 여기서는 클로딘 고토메르쉬(Claudine Gothot-Mersch)이다.

원본에서는 작가가 쓴 글만 텍스트로 한정할 수 있지만, 번역본에서는 원본에서의 결텍스트 부분도 텍스트의 지위를 차지한다.



플로베르가 쓴 헌사나 제명, 경우에 따라선 편집자의 각주까지도 번역자가 그것을 번역하기로 선택하게 되면 그것 전부가 텍스트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앞에서 본 “결텍스트”의 요소들을 다시 살펴보면 주네트의 개념들로는 다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자명’과 같은 경우이다. 번역본에서 번역자의 이름은 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자가 아닌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지 작성 원칙에서도 번역자의 자리는 항상 어정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Sartre, *The Words*, tr. by B.Frechtmann (New York: Braziller, 1964)”나 “귀스타브 플로베르, 『마담 보바리』, 김화영 역, 민음사, 200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번역자의 자리는 어딘지 결다리로 붙어있는 느낌이다. 또 ‘주석’의 경우도 원본에서는 편집자가 저자와 별도로 각주 작업을 담당했지만, 번역본에서는 바로 번역자 자신이 각주 작업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해당 그래프가 거의

7)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영미권에서 출판된 영어 번역본들의 경우엔 오래된 번역본을 재출간하면서 각주 작업을 번역자가 아닌 제3자가 전담한 경우도 종종 발견되었음을 밝혀둔다.

번역자의 몫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 ‘머리말’도 저자의 머리말에 번역자의 머리말이 추가되고, ‘헌사’조차도 번역자가 자기 가족에게 바치는 헌사가 추가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원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결텍스트” 작성자의 책임 소재의 정도를 따져 볼 때, 한쪽에 번역본의 “편집부의 몫”을 둔다면, 다른 한쪽에는 [그림 4]에서와 같이 “저자의 몫”이란 용어 대신 “번역자의 몫”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번역본에 있어서의 “결텍스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주네트가 사용하는 “편집부의 주변텍스트(*péritexte éditorial*)”, “저자의 서문(*préface auctorial*)” 등과 같은 용어와 더불어 “번역자의 주변텍스트(*péritexte traductorial*)”, “번역자의 서문(*préface traductorial*)” 등의 용어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성찰의 결과이다.

3. 한국어 번역본 『마담 보바리』의 결텍스트 분석

“결텍스트”에 관한 두 번째 성찰은 이러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 하나의 작품, 여기서는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여러 종의 한국어 번역본들에서의 “결텍스트”를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이다.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 연구는 하나뿐인 원본 텍스트(출발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할 때와는 달리 동일한 내용을 모태로 하는 복수의 도착어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교연구로부터 매우 다양한 층위의 분석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특히 동일한 문화권내에서 결텍스트적 요소들에 대한 통시적인 관찰은 시대별로 달리 요구되는 어떤 규범적 제약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에 결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해당 문화권의 번역 상황, 더 나아가 그 시대 상황까지도 드러내 주는 흥미로운 작업이다.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출판된 『마담 보바리』의 완역본은 약 48개의 상이한 출판사를 통해 모두 27명의 번역자가 번역한 총 53종⁸⁾이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54년도에 이 작품이 국내 초역된 후 60년대에 1명의 번역자가

8) “[첨부 2] : 국내 번역본 현황”의 도표 참조.

새로 번역을 시도했고, 70년대에는 무려 11명의 새로운 번역자가, 그리고 80년대 6명, 90년대 6명, 2000년대 2명의 새 번역자가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15명의 번역자의 것은 다른 번역자의 번역과 영향관계에 있는 표절본⁹⁾이었고 12명의 번역자만이 자신이 새로 번역한 경우였다. 각 시대별 특징적인 번역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1950-60년대: “역자서문”에서 “작품해설”로

1950-60년대에 출간된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 중 원역본은 양원달 역(민중서관, 1954/1966)과 오현우 역(정음사, 1965/1969) 뿐이다. 양원달 역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오현우 역은 세계문학전집으로 출간되었다. 이 두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단행본으로 출간된 양원달 역본에서는 “역자서문”이 책의 앞부분에 실려 있고 대신 “작품해설”이나 “작가연보”는 나타나지 않지만, 문학전집형태로 출간된 오현우 역은, 번역자가 쓴 “서문”이나 “역자후기”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 “작품해설”과 “작가연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 뒤로 출간되는 1970년대 이후 번역본들에서는 “작품해설”과 “작가연보”가 기본적인 결텍스트로서 항상 붙어 다니는 것으로 보아 세계문학전집들이 출간되면서 번역본에서 역자의 “서문”이나 “역자후기”는 사라지고 이 자리를 “작품해설”과 “작가연보”가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원달 역본 이후로 자취를 감춘 “역자서문”이나 “역자후기”는 2000년대에 출간된 김화영 역(민음사, 2000년)에 가서야 다시 되살아난다.

“역자서문”이나 “역자후기”는 일제 강점기에 출간된 번역본들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결텍스트였다. 이 결텍스트는 번역자의 번역 방식과 전략을 밝히는 공간으로서, 그 당시에는 중역이 횡행하던 시기였기에 번역자는 “서문”을 통해서 자신이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였는지, 아니면 중역을 하였는지를 밝히고, 중

9) 번역본들 간의 표절여부 검사는 전체 3부로 구성된 『마담 보바리』의 1부 5장, 2부 10장, 3부 7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 구문들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부분적인 비교작업 결과, 번역본의 해당 구문들이 완전동일한 경우와, 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으나, 대부분의 구문들이 선행번역본과 동일한 경우를 선행번역본과 영향관계에 있는 표절본으로 판단하였다.

역하였다면 어느 역본을 참고 하였는지 밝히곤 하였다. 또한 자신의 판본이 완역인지, 경개역¹⁰⁾인지, 혹은 초역인지, 축역인지 자신이 선택한 번역 방식을 밝히는 공간이었다. 예를 들어, 『「보바리-」夫人』이 경개역으로 수록된 『세계명작해설』(김광주 편, 수문관, 1953년)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 책을 내놓으면서”에 보면, 김광주는 책의 출간 동기와 목적, 그리고 번역시 자신이 참고한 일본어 서적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양원달 역(민중서관, 1954)의 “譯者의 말”에서는 “「파리」市 「비블리오테끄 · 쉬아르팡띠에」 一九二六年版”을 저본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프랑스어를 배운 역자의 학문적 배경으로 보아 일본어 중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저본을 밝힘으로써 역자 스스로 중역을 하지 않았다는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출간된 1966년 판본(민중서관)의 서문에 해당하는 “版을 고쳐 짜면서”에서 양원달은 1954년 번역을 재번역하였다고 밝히면서 “페이지 마다 원문과 대조하고 또 어떤 곳은 영문판, 일문판과도 대조를 하여 가며 꽤 많이 고치고 다듬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역자서문”이 실려 있다는 사실은 번역자가 자신의 번역 작품에 개입하던 정도와 책임감이 컸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문학전집 시기가 도래하면서 번역할 작품의 목록이 출판사에 의해서 선정되고, 역자는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서 번역 작업을 한 후, 정작 번역자는 배제된 채 출판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재판집과 운문이 되어 같은 책이 무책임하게 여러 번 재출간되는 이윤만능의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번역본에 대한 번역자의 권한이 줄어들고, 이 권한이 출판사로 넘어가면서 역자 서문도 번역본에서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이 시기 번역본들에 나타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는 번역본에 삽입된 계몽적인 문구를 들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세계명작해설』(김광주 편, 수문관, 1953)에는 “우리의 맹서”라는 결텍스트가 실려 있고 그 내용은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 부시자,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성하자”고 되어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당시에 한국인들의 정신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 사회적인 이슈가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 주는 부분

10) 경개역(梗概譯)이란 전체 내용을 간추려 대강의 줄거리만 옮긴 번역이다.

이다.

3.2. 1970년대: “인물소개”의 등장

이른바 “번역문학의 절정”기에 해당하는 1970년대에는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 출간이 대폭 증가한다. 앞 다투어 세계문학전집을 출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번역자 스스로 취향에 따라 작품을 선택하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번역물의 선택은 대부분 출판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 역자에게 작업이 배분되었다. 이러한 출판 시장의 호황으로 “10일에 한 번씩 인지 찍기”(김병철 1998: 193)에 바빴던 전공번역자들은 본문의 번역과 간단한 작품 해설 정도만을 작성해 넘기기에 바빴을 것이고, 출판될 형태의 최종편집은 출판사 편집진의 주도하게 이루어졌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번역본을 지배하는 번역자의 힘은 약화되고 출판사의 힘이 커지는 생산자 그룹의 권력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단시간에 출판물을 급히 찍어내야 했던 조급함은 번역본의 결텍스트의 부실을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번역본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결텍스트 요소 중 하나인 작품의 “등장인물소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70년에 출간된 김봉구 역(동화출판공사)에서부터 “주요인물” 소개가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실리게 되는데, 이 번역본의 인물 소개에서는 소설의 주인공을 ‘샤를르 보바리’로 소개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선택이 불문학전공자인 번역자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책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편집진에 의해 작성되면서 ‘당연히 주인공은 남자’ 여야 하는 가장장적인 사고방식, 즉 당시 한국인을 지배하던 정서 구조가 간섭을 일으킨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샤를르 보바리’와 함께 소개된 등장인물들은 ‘엠마 보바리’, ‘오메’, ‘뤼르’, ‘레옹 뒤삐이’ 등 모두 다섯 명 뿐으로,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인, 엠마의 바람둥이 애인 ‘로돌프’가 빠져있는 것도 작품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편집자나 제삼자의 개입을 의심하게 한다.¹¹⁾

11) 이 번역본의 본문과 1954년에 출간된 오현우 역본의 본문을 비교하여 보면, 두 번역본이 상당한 영향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번역자가 번역본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또한 1973년에 출간된 민희식 역본(동서문화사)의 “주요인물” 소개는 김봉구 역본의 “주요인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윤문을 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김봉구 역본에서 제외된 ‘로돌프 불량제’와 ‘라리비에르 박사’가 새로이 추가된 정도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출간된 민희식의 1976년 번역본(동서문화사)에서는 이 두 사람마저도 다시 누락되어 김봉구 역본과 같아진다. 또한 이 역자의 동서문화사 판본은 가장 최근에 출간된 2008년 판본까지도 ‘샤를르’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1974년에 출간된 민희식의 또 다른 번역본(문예출판사)은 플로베르 전공자인 번역자의 역량이 잘 드러난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번역본의 작품 해설 부분에는 『보바리 夫人』 연구와 더불어 작가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소개, 이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문체에 대한 연구, 풍기문란 죄로 기소된 이 작품의 재판과 그 반향에 관하여 연구 논문에 준하는 상세한 정보가 실려 있는데 그 분량이 무려 75페이지에 이른다. 민희식은 가장 많은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출간한 번역자인데, 그의 첫번째 번역인 동서문화사의 1973년 판본과 이 판본에서 약간의 내용 수정이 된 1987년 판본 두 종류가 동일한 내용으로 그대로 출간되거나 윤문된 상태로 동일 출판사나 다른 출판사에서 반복되어 재간행되어 왔다. 또한 이후에 출간된 다른 번역자들의 번역본들 중 민희식의 이 두 판본과 영향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1974년에 출간된 김기봉 역(대양 서적)의 “주요인물”을 보면, 다행히 ‘엠마 보바리’는 주인공 자리를 되찾고 있다. 그러나 그 간략한 소개를 접해 보면 등장인물들에 대한 냉소적인 소개가 눈에 띄는데 ‘엠마’와 ‘샤를르’의 경우만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엠마 보바리 - 이 소설의 타이틀 롤, 천성이 허영과 몽상에 찬 여자.

샤를르 보바리 - 엠마의 남편. 따분한 성격이다. 우직하지만 스스로는 성실하다고 믿는 범부

주요 인물에 대한 이러한 단정적인 결론은 독자들이 작품을 읽기도 전에 인물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것이고, 독자 스스로 작품을 흡수하고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이처럼 객관적이지 못한 등장인물 소개 역시 문학 연구

자인 번역자에 의해 직접 작성되었을지는 의문이다.

급하게 찍어 내기에 바빴던 조급함으로 인해서 결텍스트가 부실해진 또 다른 예로는, 1978년에 출간된 김형수 역(평범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번역본은 그 표지 제목은 “보바리 夫人”으로 되어있고, 속표지 제목과 각 페이지 머리글의 제목은 “보바리 夫人”으로 미처 작품의 제목을 제대로 통일하지 못하고 출판된 경우도 발견된다.

3.3. 1980년대: 칼라사진의 등장과 한글 표기 일반화

1980년대 번역본부터 새로 등장한 결텍스트 중의 하나로는, 주로 양장본으로 출판된 세계문학전집의 번역본에서 볼 수 있는데, 작품 해설 부분에 첨부된 칼라 사진들을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초반 한국에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면서, 출판사들은 시각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출판물에 실리던 흑백 사진이 칼라 사진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이중환 외 2001: 139-40). 번역본에 작가 플로베르와 관련된 사진들과 『마담 보바리』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 지방의 사진들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첨부되어 독자들의 작품 이해를 돕는 정보로 활용되었다.

또한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의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들은 거의 세계문학전집으로 출간되었고 ‘등장인물’과 ‘칼라사진’, ‘작품 해설’, ‘연보’ 등을 결텍스트로 포함하고 있다. 이 시기도 번역자의 관심에서 멀어진 번역본들의 경우 결텍스트의 정보는 여전히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1954년에 출간된 이 작품의 최초 번역이면서도, 작품의 제목 번역을 일본어식 표기에 휘둘리지 않고 원어의 발음을 한국어로 옮겨낸 양원달의 『보바리 夫人』도 1982년(지성출판사)과 1983년(시대문화사)에 와서는 다시 일본어식 표기인 『보바리 夫人』¹²⁾으로 출간

12) 이 작품의 제목인 “부인(夫人)”이라는 한자 표기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dame Bovary*의 일본식 번역(예를 들어 『ボヴァリ-夫人』(東京: 岩波書店, 1927))을 따른 “夫人”이라는 호칭은 Bovary라는 성을 가진 평범한 남자의 부인(婦人)을 지칭하는 호칭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최미진(2004: 187)은 우리나라 대중소설 제목으로 사용되는 “부인(夫人)”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부인(夫人)은 일반적으로 남의 아내, 특히 신분이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의 아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것은 결혼한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첫 번역을 낸 또 다른 번역자인 정소성 역본(1988년, 계몽사)의 작품 해설은 민희식 번역본의 작품 해설을 부분 발췌하여 조합한 것에 불과한데, 이는 두 번역본이 영향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80년대 번역본의 결텍스트적 요소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는 작품 제목의 한자표기가 1987년 이후 출간되는 번역본부터 거의 한글표기로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제목의 한글 표기는 현원창 역(1976년, 춘추각)에서 처음 『보바리 부인』으로 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1970년대엔 매우 드문 일이었던 한글표기가 198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모든 판본의 제목이 전부 한글표기로 바뀌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이 시기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과 관련될 터인데, 기록을 찾아보면 1980년에 한글학회에서 “한글 맞춤법”을 만들었고, 1988년 1월 19일에 문교부에서 이것을 고시하고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4년 발간된 김기봉 역본(학원사)의 “일러두기”에는 “외국어 표기, 한글 맞춤법, 인용부호, 원문의 인용보기”에 관한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본의 제목을 제외한, 작품 해설이나 본문 안에 포함된 한자들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한자를 없애기 위해 일부분을 대체가능한 한국어 표현으로 바꾼 경우가 발견되곤 하지만, 많은 경우 이전 판본을 거의 그대로 짚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3.4. 1990-2000년대: 논술 문학의 등장

1990년대 이후에도 이전 판본을 약간 수정한 상태에서 다시 짚어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부실함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1970-80년대보다는 못하지만 이 시기에도 비교적 많은 『보바리 부인』의 번역본이 출간되었는데, 이전 판본의 재출간이나 선행 번역본과 영향관계에 있는 번역물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0년에 김화영 역본(민음사)이 출간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번역본에 실린 연구논문에 준하는 깊이 있는 “작품 해설”과 번역 과정과 자료 조사 과정을 소상히 밝힌 “옮긴이의 말”을 보면 다시 번역자가 자신의 번역본에 관심을 쏟는

에서 부인(婦人)과 구별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번역본 제목을 『마담 보바리』로 택했다.

전문번역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¹³⁾.

1973년에 출간된 민희식 역본(동서문화사)은 2008년에 동일 출판사에서 다시 간행되었는데, 이 번역본에는 『보바리 부인』 이외에도 다른 장편 소설인 『나나』와 『여자의 일생』을 같이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소설 세 편을 선택하여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바리 부인』의 “주요 인물”에서 여전히 ‘샤를르 보바리’가 주인공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 이 번역본에서는 “주요 인물”의 내용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출간된 반면에, 작품에 실린 “헌사”는 수정되었는데, 이전에 출간된 동일한 역자의 동일한 출판사 판본(동서문화사, 1973, 1976, 1987)에서는 모두 “루이 부이에에게 바친다”로 제대로 번역되어 있던, 플로베르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에게 바치는 “À Louis Bouilhet”라는 헌사가 “루이 부인에게 바친다”라고 잘못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루이 부이에”가 “루이 부인”으로 바뀐 경위를 따라가 보면 국내 출판 관행의 한 적나라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루이 부인에게 바친다”라는 잘못된 헌사 번역은 민희식의 1992년(삼성출판사)본에 처음 등장하는데 아마도 번역자의 검토 없이 출판사에서 운문하는 과정에서 “루이 부이에에게”를 표기 오류로 보고 “루이 부인에게”로 수정한 결과일 것이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다른 역자의 번역본들, 박동혁 역(한국도서출판중앙회, 1992년; 하서 1992년)과 김지혁 역(삼성기획, 1994년)에서도 똑같이 “루이 부인”이라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이 번역본들이 민희식의 1992년 판본과 영향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2008년에 나온 동서문화사 판본도 아무런 검토 없이 잘못된 이들 판본 중 하나를 그대로 다시 찍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한편, 1990년대 이후로 새롭게 등장한 곁텍스트적 요소로는 논술용 문학 시리즈가 등장하면서 나오게 되는 “작품의 독서법”이나 “논술 문답 퀴즈”와 같은 논술 가이드 정보들이 있다. 작가 정보나 작품의 탄생 배경, 작품의 문체나 문학적 의의 등을 묻는 다양한 형태의 이들 문답 퀴즈의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 『마담 보바리』의 경우, 번역자의 번역 배경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역자의 “서문”이나 “후기”는 1954년과 1966년(이상 양원달 역), 2000(김화영 역)의 세 판본에서만 발견될 뿐이다

<논술 실전을 위한 문답 풀이>

(...)

10. 이 소설 『보바리 부인』을 통해 작가 플로베르가 내심 나타내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풀이 : 작가는 에마의 허망한 낭만벽과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정념을 이 작품을 통해 비웃고 있다. 또한, ‘과학’을 내세운 속물적인 인간인 약제사 오메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묘사를 통해 프랑스 혁명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희식 역, 뉴턴코리아, 2002: 436)

이러한 문학 작품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단정적인 정답이 독자들의 창의적인 사고력 증진과 논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편 『마담 보바리』의 한국어 번역본에 나타난 결텍스트들을 분석하면서 주네트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번역본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결텍스트적 요소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번역자 이름과 약력”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한국에서 외국문학의 번역자들은 많은 경우 대학 교수이며, 편집자들은 독자들에게 번역자의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그들의 직업과 업적을 번역본의 역사 약력 부분에 기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번역자의 약력의 화려함이 번역본의 품질을 언제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4. 영어 번역본 *Madame Bovary*의 결텍스트 분석

『마담 보바리』의 영어 번역본의 경우 국내 번역본의 결텍스트들과는 또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¹⁴⁾에 의하면 플로베르가 죽은 다음 해인 1881년 최초의 미국판 번역본이, 1886년 최초의 영국판 번역본이 나온 후 24명의 번역자에 의해 번역된 약 55종의 상이한 번역본이 파악되었다¹⁵⁾. 최초

14) 영어본의 경우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국내 번역본과 같은 세밀한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작업 방식은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번역본을 목록화 했으며, 국내 도서관에서 확인 가능한 판본들과 인터넷 상으로 원문보기가 가능한 판본을 중심으로 특징을 도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의 영국판 번역자인 에이블링(Eleanor Marx Aveling)의 번역은 상이한 출판사에서 간행된 가장 많은 번역 판본들이 조사되었는데, 13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판본으로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다. 그 동안 영미문화권에서 나온 번역본을 검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20세기 중반까지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우리의 번역본들과 달리 그 번역자의 존재감이 느껴질 수 있는 “결텍스트”적 요소들, 특히 ‘역주’가 거의 없고 ‘작품 해설’이나 ‘서문’과 같은 부분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축소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이러한 “결텍스트”의 충실도 여부는 “원전 중심번역”이나 “도착어 중심번역”이라는 논쟁을 상기시키는데, 일반적인 한국어 번역의 경우처럼 “형태적 등가”를 추구하는 번역은 출발어 텍스트의 구조를 존중하여, 되도록 출발어 구조에 근접한 번역 형태를 취하되 대신 역주나 설명을 통하여 독자가 번역투의 생경함에서 놓치는 언어적·문화적 맥락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우리 번역자들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종교적 거리뿐만 아니라 19세기와 20세기의 시간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비교적 많은 주석과 작품 해설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당시의 영미권 번역자들은 이러한 결텍스트들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영어문화에 대한 영어문화권과 한국어문화권의 상대적 위상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¹⁶⁾.

이와 관련하여 두 문화권에서의 번역자의 위상도 같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영미권 문화에서는 한 특정 작품을 인용(학술논문의 경우 등)할 때 번역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어 보이는데 이는 베누티(Venuti)가 “번역자의 투명성”이라는 개념으로 말한 현상과 연관 지어 생각해

15) “[첨부 3]: 영어 번역본 현황” 도표 참조.

16) 이 당시의 한국어 번역 상황과 영어권 번역 상황에 대한 인상을 잘 대변해 주는 한 문장을, 앙투완 베르만의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18세기 후반 독일번역의 절대적 충실성을 이야기하는 헤르더(Herder)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자국의 취향에 대해 지나치게 자만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은 다른 시대의 취향에 스스로를 맞추기보다는 모든 것을 자신의 취향 위주로 한다. [...] 그러나 우리 불쌍한 독인은 아직 독자와 조국이 없어서 자국의 취향이라는 폭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에 다른 시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호메로스의 번역이라 할지라도 고차원적인 비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주석과 설명이 없이는 그러한 단계에 이를 수 없다. (앙투완 베르만 2009: 84)”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번역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번역본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기도 한 이유도 있지만 언어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한 문화권이기에 원문을 존중하는 번역을 선호하고, 따라서 양질의 번역을 담보해 주는 번역자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번역본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문화권에서의 번역자의 위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결텍스트와 관련된 또 다른 관찰로는, 번역본에 번역자의 이름만 표기하는 국내의 사정과 달리 영미권 번역본에는 언제나 ‘서문’과 ‘삽화’, 혹은 ‘역주’를 작성한 자의 이름이 번역자의 이름만큼이나 과시적으로 나란히 명기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겉표지에 번역자의 이름 대신 ‘서문’의 저자명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점이다. 비록 짧은 분량의 서문이나 충분히 그 저작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고, 또 철저한 분업과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서양식 사고방식의 장점도 이해가 가지만 수백여 페이지를 번역한 번역자의 노고와 그 작품해설자의 노고가 거의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번역자의 위상이 영미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음을 대변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새롭게 번역된 영어 번역본에서는 ‘작품 설명’이나 ‘역주’와 같은 “결텍스트” 요소들이 한층 강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003년에 출간된 “펭귄 클래식(Penguin Classics)”판을 보면 이전 번역본들에서 볼 수 없었던 결텍스트가 많이 추가되었는데, ‘머리말’, ‘헌사’, ‘작가연표’, ‘역자서문’은 물론 ‘미래의 독서’라는 항목에서 참고하면 좋을 관련 서지 목록, ‘번역원전 선택에 관한 주’, 그리고 7 페이지 정도의 ‘역자주’가 달려있다. 2004년에 출간된 “옥스포드 세계고전(Oxford World’s Classics)”판도 철저히 분업화된 시스템 속에서 ‘서문’, ‘작품설명’, ‘번역원전 선택에 관한 주’, ‘서지목록’, ‘작가연보’, 그리고 역시 7 페이지 분량의 ‘역주’가 달려있다. 아마도 자본주의적 논리 속에서 양질의 교육용 번역본의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가 아닌가 추측해본다.

5. 맺음말

우리는 이제까지 제라르 주네트가 제안한 “결텍스트”의 개념과 번역 텍스

트에서의 그 개념의 한계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마담 보바리』라는 한 작품의 한국어 번역본에 나타난 결텍스트들과 영어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들을 차례로 고찰해 보았다. “결텍스트”에 관한 이러한 성찰의 결과가 번역학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 혹은 결텍스트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략 다음 세 가지 층위에서 결텍스트 연구의 의의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우선 이러한 “결텍스트” 연구는 번역본 선택 및 번역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자로서 우리가 그것이 원본이든 번역본이든 간에 다수의 판본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마담 보바리』의 원본의 경우도 실제로 다수의 출판사에서 간행된 여러 판본들이 존재한다¹⁷⁾. 이 작품은 작가 플로베르 생전에 출간된 판본만 이미 여섯 종류가 존재하고 이후에 재출간된 판본도 이십 여종이 훌쩍 넘는다. 이 수많은 판본들 중에서 독자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플로베르의 경우 갈리마르(Gallimard) 출판사의 플레이아드(Pléiade) 전집으로 나온 판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자들은 플레이아드 판 대신 가르니에(Garnier) 출판사에서 나온 판본을 선호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결텍스트의 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 고토메르쉬가 편집을 맡은 가르니에 판은 플로베르의 작품과 관련된 ‘화보’를 비롯하여, 간략한 ‘작가 연보’, ‘서문’, ‘관련서지’, “부록”으로 ‘자필 원고와 판본’, ‘집필 과정’, ‘판본 해설’ 등의 비평적 자료는 물론, 7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본 연구(Variantes)’, ‘구두점과 관련된 이본’, ‘주석’ 등 매우 화려하면서도 치밀한 “결정본”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편집자의 판본 소개가 독자로 하여금 이 판본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내게 만든다. 그것은 고토메르쉬가 플로베르 생전에 출간된 판본들 각각의 교정 상태를 꼼꼼히 비교한 후 작가 자신이 “결정본”이라고 언명한 1873년도 샤르팡티에(Charpentier) 출판사 본을 그 이듬해에 르메르(Lemerre) 출판사에서 두 권으로 출간된 판본보다 높이 평가하면서, 1951년 플레이아드 판 편집자이자 당대 최고의 플로베르 전공자인 르네 뒤메닐(René Dumesnil)이 르메르 출판사 본을 기본 판본으로 선택

17) “[첨부 1]: 플로베르 *Madame Bovary* 의 주요 판본” 목록 참조.

한 것이 문제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본 선택의 문제는 그 작품의 번역본의 선택에도 관여하는데, 다시 말해서 번역을 결심한 번역자가 어떤 판본을 원텍스트로 삼았는가의 문제가 까다로운 번역본 독자들에게 중요한 선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번역자가 자신이 어떤 판본을 선택해서 번역했는지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가장 우수한 원본을 번역 대상으로 선택했다면 독자의 신뢰도는 한층 높아지리라고 본다.

이와 더불어 번역본 자체의 “결텍스트”들도 독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논리에 의해 출판사측은 자신들이 겨냥한 독자층의 구미에 맞게 “결텍스트”들을 구성하지만, 우리가 검토한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의 경우 번역자의 지명도가 가장 우선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의 번역인가?”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선택의 기준이고, 여러 번 번역자의 손을 벗어나 재판되는 과정에서 출판된 판본이 번역자가 번역한 그대로의 판본인가 아니면 그 번역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변형되었는가? 등이 까다로운 독자들이 눈여겨보는 부분이다. 그러나 보통은 그 지명도를 가늠하는 요소로서 저자의 약력이나 경력표시 부분, 역자의 작품 해설 부분의 수준과 역주의 수준 등의 결텍스트적 요소들이 번역본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둘째, “결텍스트” 연구는 동일 문화권에서의 문학사회학적 고찰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연구는 단일한 출발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할 때와는 달리 같은 내용을 모태로 하는 복수의 도착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교 연구로부터 매우 다양한 층위의 분석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하나의 소설 작품, 여기서는 『마담 보바리』의 예를 들어보았는데, 그 소설이 한국어로 처음 번역된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국내 출판된 번역본들의 출판 횟수나 그 형태의 변화, 혹은 제목이나 역자의 서문에서 발견되는 변이 요소들을 비교하면서 그 동안 하나의 원작품이 한국이라는 한정된 문화 공간 속에서 어떤 변천을 겪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었고,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의 작품이라는 변하지 않는 상수(常數)를 중심으로 주위에 어떤 변화들이 있어왔는지를 관찰함으로써 한 사회의 시대상황 혹은 번역상황의 변천 연구가 가능함을 보았다.

셋째, “결텍스트” 연구는 이질 문화권들 사이의 비교 문화적 고찰에도 중요

한 지표를 제공한다. 즉 하나의 문화권내의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 연구도 가능하지만 복수의 이질적인 문화권내에서의 각각의 결텍스트 연구로 얻어진 성과들의 비교연구도 가능하다. 『마담 보바리』의 영어 번역본의 경우 국내 번역본의 결텍스트들과는 또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출발어가 속한 문화권에 대하여 각 도착어 문화권들이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경우엔, 각 문화권에서 번역자들이 출발어 텍스트를 다루는 태도나 혹은 자국 문화권 내에서 번역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등의 비교 연구를 통해 불어문화권에 대한 영어문화권과 한국어문화권의 상대적 위상의 차이를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번역 문학을 도착어의 문화 시스템의 일부로 이해하고, 번역 문학이 그 선택과 실천에 있어서 자국의 다른 시스템들과 유기적으로 밀접한 영향관계를 맺고 있는 또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인식 하에서 수행된 비교 문화적 고찰이었다.

참고문헌

- 김광주 편 (1953) 『세계명작해설』, 서울: 수문관.
- 김기봉 (1984) 「내가 원하는 한편의 책 -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동아일보, 1984.01.16: 6면
- 최미진 (2004) 「부인명(夫人名)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 정비석의 <自由夫人>과 전병순의 <賢夫人>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1: 185-210.
- 김병철 (1998)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윤성우, 이향 옮김 (2009)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서울: 철학과현실사.
(Berman, Antoine (1984(1995)) *L'Epreuve de l'étranger*, Paris: Gallimard)
- 이중환, 이두영, 양문길, 양평 (2001) 『우리출판 100년』, 서울: 현암사.
- 정연일, 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 입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 Theories & Applications*, London: Routledge)
- Gérard Genette (1987) *Seuils*, Paris: Édition du Seuil.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미국 국회도서관 <http://catalog.loc.gov/>

영국 옥스퍼드대 도서관 <http://solo.ouls.ox.ac.uk/>

[첨부 1] 플로베르 *Madame Bovary*의 주요 판본

A. 작가 생전에 출간된 판본

1. *Madame Bovary*, publication préoriginale dans la *Revue de Paris*, 1er octobre au 15 décembre 1856.
2. *Madame Bovary*, Michel Lévy, 1857, 2 vol., 490 pages. (chez l'imprimeur Mme Vve Dondey-Dupré)
3. *Madame Bovary*, Michel Lévy, 1862, 1 vol. de 420 pages. (chez l'imprimeur Claye) [작가에 의해 교정된 텍스트로 1857년 본에 비해 적어도 208개의 수정부분이 발견된다.]
4. *Madame Bovary*, Michel Lévy, 1869, 1 vol. de 420 pages. (chez l'imprimeur Cornillac) [1권으로 구성된 1862년 본에 대해 127 개의 이르는 많은 수정부분이 발견된다.]
5. *Madame Bovary*, Charpentier, 1873, 1 vol. de 386 pages. [세심한 교정이 이루어진 판본으로, 1869년 본에 비해 적어도 168개의 새로운 수정부분이 발견되며, “결정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6. *Madame Bovary*, Lemerre, 1874, 2 vol., de 252 et 278 pages. [1873년 Charpentier 본과 상당히 다른 판본(약 548 개의 상이한 부분 발견)으로, 고토메르쉬Gothot-Mersch의 표현에 따르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주 이상한 갑작스런 변종 판본”이다.]

B. 사후 출간된 주요 판본

1. *Madame Bovary*, Louis conard, 1930.

2. *Madame Bovary*, éd. René Dumesnil, Les Belles Lettres, “Les Textes français”, 1945, 2 vol.
3. *Madame Bovary*, éd. René Dumesnil, in *Oeuvres*,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51.
4. *Madame Bovary*, éd. Bernard Masson, in *Oeuvres complètes*, t.I, Le Seuil, “Intégrale”, 1964.
5. *Madame Bovary*, éd. Claudine Gothot-Mersch, Garnier Frères, “Classiques Garnier”, 1971.
6. *Madame Bovary*, Club de l’honnête homme, 1971.
7. *Madame Bovary*, éd. Gérard Gengembre, Magnard, “Texte et contextes”, 1988.
8. *Madame Bovary*, éd. Pierre-Marc de Biasi, Imprimerie nationale, “La Salamandre”, 1994.
9. *Madame Bovary*, éd. Béatrice Didier, Le Livre de Poche, 1983.
10. *Madame Bovary*, éd. Jacques Neefs, Le Livre de Poche classique, 1999.
11. *Madame Bovary*, éd. Thierry Laget, Gallimard, “Folio Classique”, 2001.

[첨부 2] 국내 번역본 현황 (초판 출간연도순)

No.	번역자명	제목	출간연도	출판사	기타사항
1	양원달	보바리 夫人	1954	민중서관	
2		보바리 夫人	1966	민중서관	수정 번역본
3		보바리 夫人	1982	지성출판사	
4		보바리 夫人	1983	시대문화사	
5	오현우	보바리 夫人	1965, 1969	정음사	
6		보바리 夫人	1975	삼중당	
7		보바리 夫人	1984	정음문화사	
8	김봉구	보바리 夫人	1970, 1972	동화출판공사	
9	김형수	보바리 夫人	1972	학원사	
10		보바리 夫人	1973	대양출판사	

11		보바리 夫人	1978	평범사	
12	민희식	보바리 夫人	1973, 1976, 1977, 1987, 2008	동서문화사	
13		보바리 夫人	1974	문예출판사	
14		보바리 夫人	1983	범한출판사	
15		보바리 부인	1989	세명문화사	
16		보바리 부인	1992	삼성출판사	
17		보바리 부인	1994, 2005	신원문화사	
18		보바리 부인	2001, 2002	한국뉴턴(뉴턴코리아)	
19		보바리 부인	2005	계몽사/ 종로학원	
20		보바리 부인	2007	문예출판사	
21		안동일	보바리 夫人	1973	신문출판사
22	보바리 夫人		1981	한영출판사	
23	보바리 夫人		1983	박문서관	
24	김기봉	보바리 夫人	1974	대양서적	
25		마담 보바리	1984, 1985, 1989	학원사	
26		보바리 부인	1989	교육문화사	
27	신동백	보바리 夫人	1974	학진출판사	부제: 시골 風俗
28		보바리 夫人	1984	유림당	
29	현원창	보바리 부인	1976	춘추각	
30	임문영	보바리 夫人	1977, 1979	문학당	
31		보바리 夫人	1982, 1986	삼성당	
32	박광선	보바리 夫人	1978, 1980, 1986	휘문출판사	
33		보바리 부인	1985	신영출판사	
34	김규창	보바리 夫人	1979	명문당	
35	이진	보바리 夫人	1979	계원출판사	부제: 시골 風俗
36	배기열	보바리 夫人	1981, 1990	금성출판사	
37	이영숙	보바리 夫人	1981	한국독서문화원	
38	최정순	보바리 夫人	1986	양우당	
39	권미영	보바리 부인	1987	일신서적공사	
40	권혁인	보바리 부인	1987	청화	
41	정소성	보바리 부인	1988, 1991, 1994	계몽사	
42	최현주	보바리 부인	1991	청목	
43	최은혜	보바리 부인	1991, 2002	혜원출판사	

44		마담 보바리	1992	하서출판사	
45	박동혁	보바리 부인	1992	한국도서출판중앙회	
46		보바리 부인	2001	범한	
47	김남제	보바리 부인	1993, 2008	홍신문화사	
48	x	보바리 부인	1993	청화출판사	
49	김지혁	보바리 부인	1994	삼성기획	
50		보바리 부인	1995	육문사	
51	유인숙	보바리 부인	1994	한얼	
52	김화영	마담 보바리	2000, 2006	민음사	
53	박지향	보바리 부인	2004, 2005	삼성출판사	

[첨부 3] 영어 번역본 현황 (초판 출간연도순)

No.	번역자명	제목	출간연도	출판사	기타
1	Mary Sherwood	<i>Madame Bovary</i>	c1881	Philadelphia, T. B. Peterson & brothers	최초의 미국판본 부제: "A tale of provincial life"
2	Eleanor Marx Aveling	<i>Madame Bovary</i>	1886	London : Vizetelly	최초의 영국판본, 부제: "provincial manners"
3			1891	Chicago, Laird & Lee	부제: "or, Loved to the last"
4			1918	N.Y.; Boni and Liveright	
5			1919	N.Y.; Knopf	
6			1930	London	James Edward Miles 서문
7			1934	London, J. M. Dent & sons, ltd.; N.Y.; E. P. Dutton & co., inc	
8			1938	Zurich, Fretz brothers ltd.	한정관 삽화 및 André Muraois 서문
9			1948	Cleveland, World Pub. Co.	
10			1950	N.Y.; Modern Library	부제: "provincial manners"
11			1950	N.Y.; Harper	Caroline Gordon 서문
12			1955	Rinehart Editions	Charles I. Weir

					Jr. 서문
13			1969	N.Y.; F. Watts	
14			1969	N.Y.; Dodd, Mead	Victor Brombert 서문
15			1977	London ; Oxford U.P.	
16			2003	Booksurge LLC	인터넷 출판
17			2008	Digireads.com Book	인터넷 출판
18	William Walton	<i>Madame Bovary</i>	1896	Philadelphia, Printed only for subscribers by G. Barrie & son	
19	W. Blaydes	<i>Madame Bovary</i>	1902	N.Y.; Collier & son	Henry James 서문 Octave Uzanne 삽화
20			1923	London; Heinemann	
21	Joan Charles	<i>Madame Bovary</i>	1949	Philadelphia, J.C. Winston Co	
22	Gerard Hopkins	<i>Madame Bovary</i>	1949	N.Y; Oxford U.P.	부제: "life in a country town" 서문 없음.
23			1998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서문 Trencce Cave
24			1999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서문 Anita Brookner
25	J. Lewis	<i>Madame Bovary</i>	1950	N.Y.; Limited Editions Club	
26	May		1977	New York : Hart Pub. Co.	부제: "a story of provincial life"
27	Alan Russell	<i>Madame Bovary</i>	1950, 1952	The Penguin Classics	
28			1982	N.Y.; Greenwich House	부제: "a story of provincial life"
29			1957	N.Y. ; Random House	부제: "patterns of provincial life"
30			1957, 1978,	Franklin Center, Pa. : Franklin Library	부제: "a study of provincial life"
31	Francis Steegmuller	<i>Madame Bovary</i>	1979	Franklin Center, Pa. : Franklin Library	부제: "a story of provincial life" 삽화가 바뀜
32			1982	N.Y.; Modern Library	
33			1985	N.Y.; Vintage Classics	
34			1992	N.Y.; Vintage Books	
35			1992	N.Y.; Modern Library	
36			1993	N.Y.; Alfred A. Knopf	
37	Lowell Bair	<i>Madame Bovary</i>	c1959	New York : Bantam	
38	Alison	<i>Madame Bovary</i>	1962	Woodbury, N.Y., Barron's	

				Educational Series	
39	Fairlie		1969, c1962	London, Arnold	
40	Mildred	<i>Madame Bovary</i>	1964	N.Y.; New American Library	
41	Marmur		1997	N.Y.; Doubleday	
42			2001	N.Y.; Signet Classic	
43	Paul de Man	<i>Madame Bovary</i>	1965	New York, W. W. Norton	
44	Merloyd Lawrence	<i>Madame Bovary</i>	1969	Boston, Houghton Mifflin	
45	Lewis Warsh	<i>Madame Bovary</i>	1985	Woodbury, N.Y.	
46	Eric Gans.	<i>Madame Bovary</i>	1989	Boston : Twayne Publishers	부제: "the end of romance"
47	Rosemary Lloyd	<i>Madame Bovary</i>	1990	London ; Boston : Unwin Hyman	
48	Stephen Heath	<i>Madame Bovary</i>	1992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49	Goeffrey	<i>Madame Bovary</i>	1992, 2003	London, N.Y.; Penguin	역자 서문, 역자 주석. 머리말 Michèle Roberts
50	Wall		2001	Harlow : Pearson Education	부제: "provincial lives"
51	Fay Weldon	<i>Madame Bovary</i>	c2003	London : Nick Hern	부제: "breakfast with Emma"
52	Sylvere	<i>Madame Bovary</i>	2004	N.Y.; Fine Creative Media	
53	Lotringer		2005	N.Y.; Barnes & Noble Classics	
54	Margaret	<i>Madame Bovary</i>	2004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부제: "provincial manners"
55	Mauldon		c2008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56	Raymond N. MacKenzie	<i>Madame Bovary</i>	c2009	Indianapolis, IN : Hackett Pub. Co.	부제: "provincial lives"
57	Lydia Davis	<i>Madame Bovary</i>	2010	New York : Viking	

[Abstract]

**Interpretations of Paratext in Translations:
in case of Flaubert's *Madame Bovary***

Ji, Young-Rae · Park, Sunheui
(Korea University)

Using Gérard Genette's *Seuils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as a theoretical starting point, this paper aims to show the inadequacy of his concept of paratext in translation studies, and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its interpretations for explaining the cultural complexity within a single community and between communities.

We therefore analyzed the paratexts in Korean and English translations of *Madame Bovary*, a French novel written by Gustave Flaubert. In case of the Korean translations of this novel, we examined the chronological alterations and problems of their paratexts in the social contexts of Korea. Analyzing the paratexts in English translations of *Madame Bovary*, we also explored the differences of paratexts between Korean versions and English versions.

In conclusion, we proposed to define the significance of paratext studies in translation as follows: the paratext in translation is a possible criterion for the choice of translated texts and the translation assessment; and its study makes possible the cultur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n one single cultural area,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s between different cultural areas.

▶ Key Words: Paratext, Gérard Genette, Gustave Flaubert, *Madame Bovary*, *Seuils*, Translation.

지영래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jimage@korea.ac.kr

관심분야: 문학비평, 프랑스문학번역

박선희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박사과정

omoname@korea.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학번역 평가

논문투고일: 2010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27일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4일